

한국
교회와 사회의
위기,
자발적불편으로
극복하다



일시 | 2019년 1월 29일(화) 오후 7시

장소 | 열매나눔재단 나눔홀

주최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발적불편운동본부

순서 및 목차

1. 인사

/ 사회 : 신동식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본부장,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2. 한국 사회의 위기, 자발적 불편으로 극복하다

/ 발제 : 목광수 (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 기윤실 바른가치운동 본부장)

3쪽

3. 한국 교회의 위기, 자발적 가난으로 극복하다

/ 발제 : 오세택 목사 (두레교회 담임목사)

13쪽

4. 질의 및 응답

/ 다함께

발행일 | 2019년 1월 29일

발행인 | 백종국

편집인 | 정병오, 신동식

편집 | 박제민

발행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홈페이지 cemk.org 이메일 cemk@hanmail.net



한국 사회의 위기, 자발적 불편으로 극복하다

목광수 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 기윤실 바른가치운동 본부장

1. 한국 사회의 몇 가지 장면들

- #1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
- #2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와 일자리 부족
- #3 입시 과열과 경쟁 심화
- #4 부동산 투기

한국 사회의 이러한 장면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미세먼지가 주는 불쾌함과 피해에 대해 알기 때문에 고치고 싶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을 개혁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교육의 증가하고, 학교 현장이 입시로 인해 피폐해져 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장면들의 원인에 대해 이해하고 해결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

한국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문제들의 이면에 담긴 달콤한 혜택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드라마 “SKY캐슬”에 경악하면서도 사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는 모습, 부동산 열풍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참여하여 이익을 보려는 모습 등은 이러한 동경을 반영한다. 이러한 모습은 왈쩌(Michael Walzer)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들이 경제적 가치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을 묘사한 것과 유사하다.¹⁾ 둘째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손해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모두가 함께한다면, 즉 닥칠 손해를 나눌 수만 있다면 참여하겠지만, 내가 먼저 나서서 손해를 입는 것은 꺼려지기 때문이다.

경제적 가치가 가장 우세한 가치가 되어 다른 영역들을 지배하는 일원화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관계들의 깨어짐이다. 거칠게 정리해 보면, 이러한 관계 단절이 4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²⁾ 자기 거부(정신 질환의 증가), 친밀감 집단의 해체(강제된 비혼과 저출산, 자존감 상실³⁾), 사회적

1) Michael Walzer (1984), *Spheres of Justice*, Basic Books. 왈쩌는 이 책에서 다양한 가치들이 각 영역에서의 독점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영역으로의 지배는 할 수 없는 다원적 평등(complex equality)이 현대 사회에서의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2)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캐비너(John F. Kavanaugh)는 소비사회에서 자기 파괴적 소비와 생산으로 인한 자신의 내면세계 상실, 친밀감 상실, 상품화된 인간관계의 폭력성, 비인간화 등으로 관계의 깨어짐을 설명하고 있다(캐비너 (2011),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박세혁 옮김), IVP, pp. 65-82.

관계의 파괴성(성과 위주의 피로 사회,⁴⁾ 젊은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와 교육 현장의 피폐), 인간관계의 파괴(힘오와 배척, 2018년 여름 제주도에 온 예멘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위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겠지만, 관계의 붕괴(no reciprocity), 공동체의 붕괴, 이로 인한 각자도생과 적자생존의 몸부림으로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다. 친밀감을 유지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으며, 서로 도와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사라지게 되면, 홉스(Thomas Hobbes)가 말하는 모두가 모두와 투쟁하는 전쟁상태가 된다. 홉스는 이러한 전쟁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외롭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잔인하고, 짧다”(solitary, poor, nasty, brutish, and short)고 언급한다.⁵⁾ 사회적 관계가 깨어져 희망이 없는 전쟁상태와도 같은 한국 사회의 위기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빚지고 있다는 도덕’(what we owe to each other) 의식의 부재와 긴밀하게 관련된다.⁶⁾ 왜냐하면, 이러한 도덕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필자와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구축하려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선호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회적 신뢰와 믿음이 형성된 도덕 없이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까? 설령 법과 제도가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도덕 없이 실질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까? 시간강사법(2018 개정), 최저임금법(2018 개정)이나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2015 개정) 등이 만들어져도 여전히 그러한 법망을 피해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free-riders), 그 법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역설적인 상황이 나오는 한국 사회에서의 경험은 도덕 없는 법의 맹점을 잘 보여준다. 법과 제도는 사회적 공감대와 윤리 의식 아래 최소한의 영역에서 강제성을 갖고 지탱하는 제한적 역할이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먼저 한국 사회에 도덕과 윤리 의식이 형성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실효성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2. 도덕의 구조

한국 사회의 위기가 도덕의 부재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없다는 것인가? 학문적으로 수많은 윤리 이론들과 도덕관들이 있는데, 한국 사회에는 그러한 이론이 없다는 의미인가? 한국 사회에 도덕이 부재하다고 말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인식적 차원뿐만 아니라 실천의 차원까지 나아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윤리의 부재 현상이 뭘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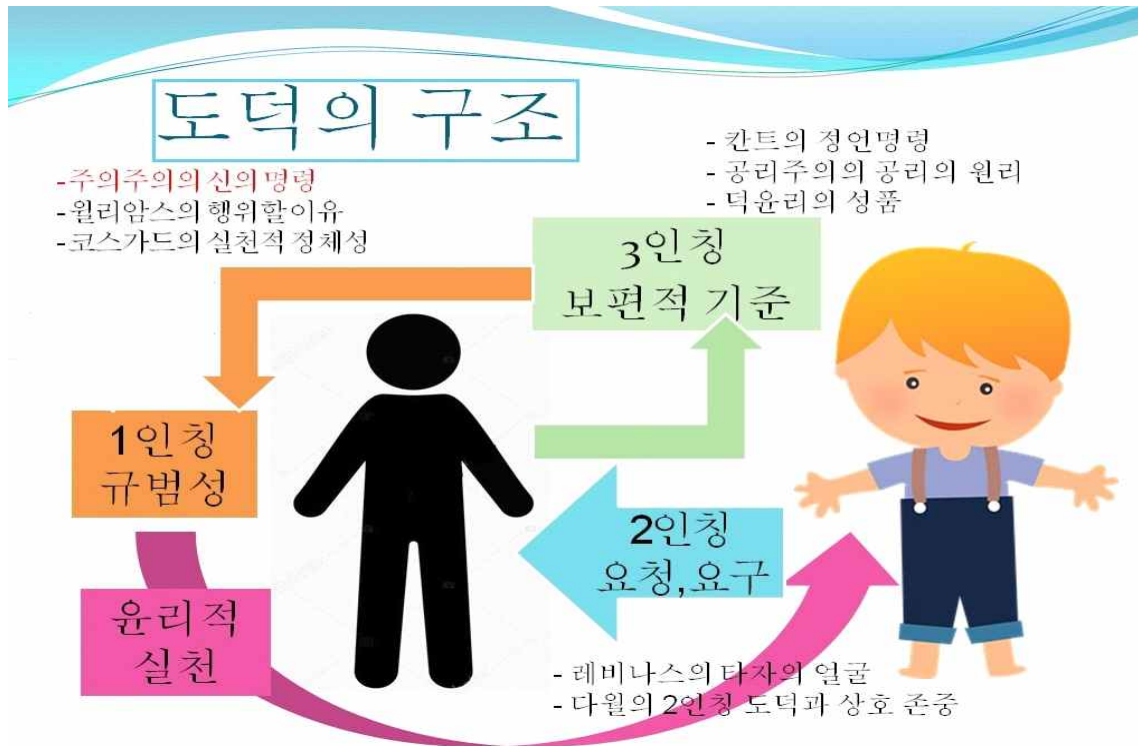
3) 롤즈(John Rawls)는 『정의론』에서 “자존감 없이는 어떤 것도 할 만한 가치가 없을 것”이며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가 “가장 중요한 기본 재화”라고 천명한다(John Rawls (1999),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p. 386, p. 79).

4) 한병철 (2010),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5) Thomas Hobbes (1668), *Leviathan* (Edwin Curley ed.), Hackett Publishing Company, p. 76 [61-63].

6) 스캔론(Thomas Scanlon)은 도덕을 서로가 서로에게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계약론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Thomas Scanlon (1998), *What We Owe to Each Other*, Harvard University Press).

는, 기본적인 도덕의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양 윤리의 다양한 이론들을 검토하면서 구조화한 아래의 도덕 구조는 동양 윤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은 기본적으로 2인칭인 타자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어떤 광경을 목격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도덕적 필요성을 감지하는 것이 이러한 요청의 단면이다.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이러한 요구를 “타자의 얼굴”이라고 표현한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자의 곤궁과 궁핍은 하나의 명령으로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 방식은 상처받을 수 있고 외부적인 힘에 대해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얼굴의 윤리적 호소이다.⁷⁾ 타자의 얼굴을 직면하면서, 우리는 타인에게 빚지고 있는 것, 즉 도덕을 깨닫게 된다. 도덕이 요청되는 2인칭 관계는 타자가 나와 동일한 도덕적 존재라는 상호 존중(mutual respect)에 기반을 두고 있다.⁸⁾ 우리가 도덕적 지위(moral status)를 인정하지 않는 타자로부터는 어떠한 도덕적 요청이나 요구도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칸트(Immanuel Kant)는 인간을 목적의 왕국의 일원인 목적적 존재, 즉 존엄한 존재로 간주하는 전제에서 도덕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도덕적 존재인 타자로부터 제기된 도덕적 요구에 대해 우리는 모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 요구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타자의 요청에 대한 보편적 기준 검토가 3인칭적 논의이다. 규범 윤리학(normative ethics)의 대표적인 세 가지 이론인, 의무론(deontology), 공리주의

7) 강영안 (2005), 『타인의 얼굴』, 문학과지성사, pp. 148-149.

8) Stephen Darwall (2006), *The Second-Person Standpoint: Morality, Respect, and Accountabi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utilitarianism), 덕 윤리(virtue ethics)는 모두 이러한 도덕적 기준 또는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칸트는 보편화 가능성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정언명령의 형식을 따라 도덕법칙 여부를 검토하고,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통해 어떤 행위가 옳은지를 검토하며, 덕 윤리는 덕성(virtue)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타자로부터 제기된 요청이 도덕적 원칙에 따라 검토되어 적절한 원칙으로 확립된 것이 윤리적 실천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해당 도덕을 내가 해야 한다는 의무의 동기가 있어야 한다. 즉 3인칭적인 보편적 과정을 통해 검토된 도덕 내용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당위로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 즉 규범성(normativity)이 확립되어야 한다. 근대 초기의 학자들은 주의주의 전통에서 신의 권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규범성의 근거를 찾았는데,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신의 명령 논의는 설득력이 있기 어렵다. 규범성에 대한 물음은, 도덕성의 명령을 행위하도록 요구받는 행위자에게 제기되는 물음, 즉 1인칭적으로 왜 그 도덕적 행위를 해야만 하느냐는 물음이다.⁹⁾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규범성의 원천을 모색하면서, 코스가드(Christine Korsgaard)는 도덕성의 법칙이 반성적 구조를 갖는 자기의 식적인 존재로서 행위자 자신이 지닌 의지의 법칙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고 확립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정체성 개념은 우리 자신에 대한 특정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행위를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기술”인데, 이러한 ‘실천적 정체성’ 개념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책무(obligation)라는 규범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도덕적 행위를 실천의 동기가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코스가드의 해석은 다른 규범 윤리학인 공리주의나 덕 윤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¹⁰⁾

앞에서 살펴본 장면들에서 나타나는 한국 사회에서의 윤리적 실천의 부재를 위 도덕의 구조를 통해 다시 살펴보자. 2인칭 타자의 요구는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3인칭의 보편적 기준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라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3인칭적인 보편적 검토 자체가 1인칭으로 갈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지 못하고 경제적 가치로 일원화된 한국 사회에서는, 물질적 가치와 개인적 이익이라는 중요한 동기가 보편적인 도덕 기준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추후 논의하겠지만, 기독교윤리가 한국 사회에서의 윤리 형성에 기여할 부분이 있음을 보여준다.¹¹⁾ 어쨌든, 2인칭 타자의 요구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공분은 3인칭의 보편적 기준 검토가 비록 확고하지는 않더라도 약화한 형태로나마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설령 3인칭 검토가 논리적으로 이루어져도 이에 대한 1인칭의 규범성 확보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신의 명령에 대한 존중을 전제할 수 없는 다원주의 한국 사회에서, 실천적 정체성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있어도

9) 크리스틴 M. 코스가드 (2011), 『규범성의 원천』 (강현정, 김양현 옮김), 철학과 현실사, p. 38.

10) 일부 학자들은 공리주의가 동기 논의에 취약하다고 비판하기도 하며, 덕 윤리에서는 인지와 실천 사이의 간극을 의지박약(akrasia, weakness of will)로 설명하기도 한다.

11) 이 부분은 롤즈(John Rawls)가 제시하는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의 동적 과정에서 종교 윤리와 같은 각 포괄적 교설(comprehensive doctrine)의 역동적 기여를 생각해 볼 수 있다(John Rawls (1993), *Political Liber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그 힘이 강하지 않아 물질적 가치와 개인적 이익이라는 동기가 규범성 동기를 희석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2인칭과 3인칭의 도덕 구조가 내면화되고 실천되기 위한 1인칭의 규범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윤리적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 도덕 실천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기독교 윤리

경제적 가치의 일원화된 사회에서 3인칭적인 보편적 도덕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1인칭적인 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정체성, 즉 타자가 나와 동일한 인간이라는 상호 존중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2인칭적 타자의 요청과 요구에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들의 존중되고 의미 부여되는 도덕의 실천에 대해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즉 내가 먼저 나섰다가 손해 볼까 봐 두려워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누군가 묵묵히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꺼이 실천하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실천이 종교인들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종교 윤리의 역할이 비록 갈수록 퇴색되어가고 있지만, 서구 사회에서 오랫동안 있어다고 생각한다.¹²⁾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사랑으로 볼 수 있다.¹³⁾ 성경에서 예수님은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는 물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이라고 대답하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고 했다. 바울 또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10)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사랑이 기독교 윤리에서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14-17). 기독교 윤리는 성육신(incarnation)과 행동의 측면, 즉 “존재의 뿌리에서 나오는, 존재의 동일과 부합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¹⁴⁾

12) 비슷한 맥락에서 임성빈은 하버마스나 롤즈의 논의가 공공신학적 논의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임성빈 (2009), 「한국교회의 사회 참여와 공공신학」, 『공공신학』(임성빈 엮음), 예영커뮤니케이션, pp. 19-25).

13)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며, 특히 엘룰(Jacques Ellul)은 (인간 주도적인) 좋음을 규정하고 시작하는 이론 체계로서의 기독교 윤리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인을 위한 윤리, 즉 십자가 밑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용서에 대한 소망 속에서 봉사의 역할을 수행할 뿐인 그런 윤리”로서의 기독교 윤리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자크 엘룰 (2008), 『일함과 행함』(양명수 옮김), 솔로몬, pp. 345-346). 따라서 본 글은 특정한 기독교 윤리의 입장이 아닌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맥락에서의 기독교 윤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기독교 윤리의 특징은 변화된 존재로부터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즉 기독교 윤리는 죄의 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있다.¹⁵⁾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정의롭게 사는 길은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의 존재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변화된 삶의 변화 모습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엡 5: 8-9)

기독교 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코스가스식으로 말하면 실천적 정체성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더욱이 신의 명령과 성령의 역사라는 내재적이며 외재적인 동기가 명료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1인칭적 규범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손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라도 선제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동력이 기독교 윤리에 있다. 이러한 기독교 윤리의 본보기가 사회 구성원들의 도덕적 실천을 독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도덕 심리학적 경험적 논의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들은 해외원조에 호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마저 자신의 원조가 “양동이 속 한 방울”(a drop in the bucket)에 불과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유사 무력감”(pseudoinefficacy)으로 인해 실천적인 원조 활동에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¹⁶⁾ 그러나 이러한 유사 무력감은 다른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경험, 또한 자신의 원조가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의 확인의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분석한다. 기독교 윤리에 입각한 실천 행위가 이러한 극복의 영향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기독교윤리에서 본 자발적 불편

자발적 불편이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물 절약, 전기 절약, 검소한 생활 등이어서 자발적 불편이 단순한 검소, 절제, 환경보호, 생태주의 그 자체로 오해할 수 있다.¹⁷⁾ 자발적 불편의 기독교 윤리

14) 자크 엘룰 (2008), 『원함과 행함』(양명수 옮김), 솔로몬, p. 339.

15) 강영안 (2011), 「십자가와 기독교 윤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 그랜드레피드 교회 고난주간 특강(4월 17일) 특강 원고. 이 특강 원고에서 강영안은 “윤리가 모두는 아니지만 모든 것은 윤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입장이 자신의 윤리에 대한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존재 변화를 통한 실천에 대해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주 쓴 ‘행위는 존재를 뒤따른다’(Agir sequitur esse), 즉 이 존재 변화를 신학 용어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됨’ 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n with Christ)이라는 표현에서 찾고 있다.

16) Västfjäll, Slovic, and Mayorga (2015), “Pseudoinefficacy: negative feelings from children who cannot be helped reduce warm glow for children who can be helped,” *Frontiers in Psychology* Vol.6.

17) 손봉호 선생님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인 검소, 절제의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첫째, 적게 쓰니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게 있고, 둘째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셋째 환경오염에 반대, 넷째 돈으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도덕성과의 관계라는 의미 등을 갖는다고 언급한다(손봉호, 2008, 『복음과 상황』 인터뷰).

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자발적 불편에 대한 다음 인터뷰는, 기독교윤리 차원에서의 자발적 불편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을 포기한다 하는 말은 결국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양보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공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희생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려는 걸 다 같이 추구하고 다른 사람만큼 편리하게 살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에 어긋납니다.”¹⁸⁾

이 짧은 내용은 서로 연결되지만 구분되는 자발적 불편이 갖는 세 가지 의미를 볼 수 있게 한다. 첫째는 자발적 불편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함을 의미한다. 자발적 불편은 그리스도인이 남은자(remnants)로서 이 세대를 역행하여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롬 12:1). 따라서 자발적 불편에서 불편의 의미는 심리적, 물리적 감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사고에서 나타나는 시대와의 마찰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모두가 작은 부정을 야기하는 직장에서 한 사람의 정직한 행위는 직장 동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편은 기독교적 가치인 정직 추구에서 비롯된 불편이라는 점에서 자발적 불편의 불편이다. 그러나 직장에서 갑질하는 상사는 직장 동료들을 “불편”하게 하는데, 이러한 불편은 심리적, 물리적으로는 불편일 수 있지만,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가치와 어긋나는 불편이어서 자발적 불편의 불편은 아니다.

둘째, 자발적 불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관련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 속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히 11:13-16, 벧전 1:3-4, 골 1:5).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마 6:24). 따라서 자발적 불편에 나타나는 불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불편을 의미한다.

셋째는 자발적 불편은 타자를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골전 8: 13). 3세기경에 시작된 이집트 사막의 교부들(Desert Father)의 삶은 이러한 불편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¹⁹⁾ 사막의 교부들은 신앙을 위해 자발적 검소와 절제의 불편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금욕 기간에도 방문객(손님)을 환대하기 위해 “먹는” 불편을 기꺼이 감수한다. 자신들의 훈련보다 타인을 환대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18) 2012년 손봉호 선생님의 자발적 불편운동 다큐 영상 중의 내용

<https://www.youtube.com/watch?v=dtQ9ym7vA7c>

19) 베네딕타 와드 편역 (2007), 『사막 교부의 지혜』(엄성욱 옮김), 은성, p. 143.

부합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더위로 힘들어하는 이웃이 내 집에 방문했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어컨을 켜지 않아 “불편”하게 하는 행위, 오랜만에 손님이 방문했지만, 비축된 음식을 검소 차원에서 내어놓지 않고 물만 내어놓는 “불편”을 감수하는 행위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자발적 불편의 기독교 윤리적 의미의 불편이라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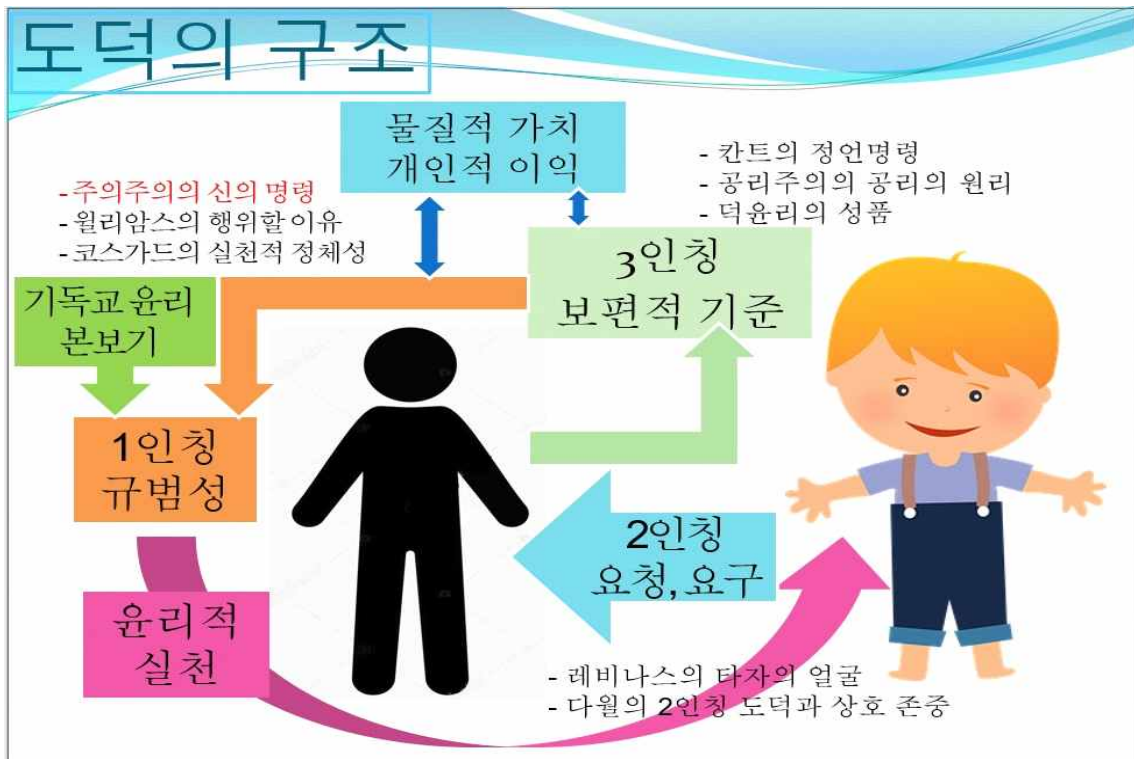
이상의 세 가지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조명한 자발적 불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신자들이 하나님 사랑과 상호 존중에 입각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아래는 2018년 1년 동안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실시했던 자발적 불편 운동의 주제와 실천과제이다. 아래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위에서 분석한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간	주제	실천과제
3~4월	아껴 쓰는 그리스도인	받아서: 양치·세수·설거지할 때 물을 받아놓고 쓰기
		모아서: 빨래·설거지는 모아서 한꺼번에 하기
5~6월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이야기하기: 지역구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관하여
		기도하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지도자가 당선되도록
		투표하기: 선거일에 투표하기
7~8월	창조세계를 돌보는 그리스도인	개인: 노타이, 반소매 등 쿨비즈룩 착용하기
		교회: 냉방 희망온도를 26°C 이상으로 유지하기
		가정: 냉동실은 가득, 냉장실은 절반만 채우기
9~10월	배려하는 그리스도인	행동하기: 음식 준비·정리는 함께하기
		말하기: 배려·존중하는 말 사용하기
		한걸음 더: 평등 언어 사용하기
11~12월	약자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봉사하기: 가까운 복지시설을 찾아가 봉사활동하기
		후원하기: 약자를 돕는 단체를 후원하기
		초청하기: 약자를 위한 교회 행사 개최하기
		한걸음 더: 각종 피해자의 삶과 그들을 돕는 기관에 관심 갖기

5. 자발적 불편의 기독교 윤리가 실천된 도덕의 구조

기독교 윤리의 표현이 자발적 불편이라면, 이러한 자발적 불편의 실천이 한국사회의 위기인 도덕의 부재 해결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앞에서 보았던 한국사회의 장면들 #1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 #2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와 일자리 부족, #3 입시 과열과 경쟁 심화, #4 부동산 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 불편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미세먼지의 증가가 사회적 약자들, 특히 노약자들

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노약자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등의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와 일자리 부족은 의미 있는 일(meaningful work)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자존감이 상실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서로 임금을 나누며 공유하는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입시 과열과 경쟁 심화에서 초래하는 청소년들의 적대감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 나쁜 사교육을 벗어나는 실천, 성적보다 진정한 교육을 추구하는 가정환경과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한한 재화를 획득하는 것이 가져오는 타자의 피해에 대한 인식을 통해 과도한 이윤 창출과 투기를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자발적 불편에 입각한 기독교 윤리 실천은 물질적 가치와 개인적 이익이 제기하는 3인칭 보편적 기준 마련의 장애물과 1인칭 규범성 확립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독교 윤리의 실천을 통해 한국 사회의 도덕 부재 현상이 극복될 것인가? 손봉호 선생님은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사회가 달라질까요? 우리만 바보 되는 것이 아닌지?”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옳으면 해야 되요. 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나아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혀야 일을 한다는 것은 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어쨌든 무조건 좀 손해보고 불편하게 살자 그게 옳다고 봅니다.”²⁰⁾

필자는 이러한 손봉호 선생님의 “선지자적 비관주의”에 일견 동의한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외칠 책임이 있지, 그러한 외침을 사회 구성원들이 듣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겔 3: 17, 33: 6). 그러나 필자는 또한 이러한 기독교 윤리가 표현된 자발적 불편의 실천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평생을 노예해방운동을 했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실천은 결국 노예해방으로 나타났다.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환대(hospitality) 논의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 정신에 근거한 무조건적 환대는 어원상 적합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적용되는 조건적 환대, 즉 자신의 조건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응대가 윤리적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등대와도 같다.²¹⁾ 한국 사회의 깨어진 관계로 인해 신음하는 목소리에 아파하는 목자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자발적 불편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 사회에 있을 것이다.

20) 2012년 손봉호 선생님의 자발적 불편운동 다큐 영상 중의 내용
<https://www.youtube.com/watch?v=dtQ9ym7vA7c>

21) Jacques Derrida (2001), *On Cosmopolitanism and Forgiveness*, Routledge. pp. 1-24.

한국 교회의 위기, 자발적 가난으로 극복하다

오세택 두레교회 담임목사

1. 한국교회 위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 한국교회가 위기상황이라는 현실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뭐가 위기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명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 그 증거는 위기를 극복하자면서 제시되는 대안들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문제의 핵심부터 알아야 한다.
- 한국교회의 위기는 손봉호 장로가 어느 모임에서 지적했듯이 성장지상주의가 그 원인이다. 양적성장의 지향이 오늘 한국교회의 실제적 리드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의 일반적인 관심사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많은 성도, 많은 재정, 그리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건물, 즉 교회의 부가 목회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 한국교회가 위기를 넘어 진정한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목회와 신학의 방향을 성경으로 되돌려야 한다. 성경의 교회는 자발적인 가난, 그것도 구속론과 기독교의 관점에서 가르치고 실천하는 공동체다. 이제 그 근거를 성경을 들어 정리해보기로 한다.

2. 교회의 자발적 가난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 교회의 자발적 가난은 성경적으로 긴 이야기, 역시 구속의 이야기에서 생겨났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탄하신다. 인간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한탄하셨다.(창6:6,7) 그래서 한 번은 홍수로 진멸하시고 한 번은 언어를 혼잡케 해서 지면에 흠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될 만큼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었다.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짐으로 인해 생겨난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애적 욕망을 말한다. 이 자기애적 욕망은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기기도 하지만 약육강식, 우승열패와 같은 인류사의 고통을 만들게 되었다.
- 이런 인간을 진멸하고 흠음으로 끝내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셨다. 우선은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민족을 들어 구원하기로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과 열 두 아들들을 주셨다. 이들과 이들의 후손을 통해 열국이 복을 받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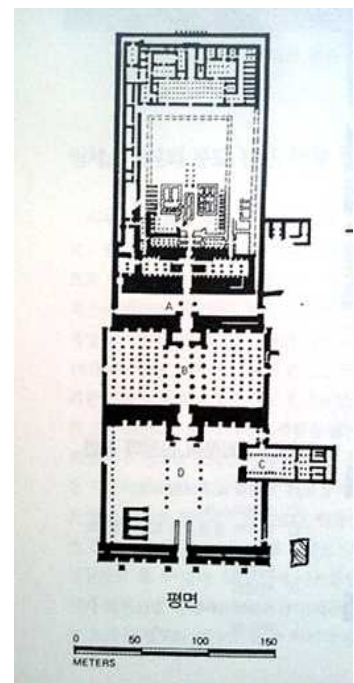
록 작성하셨다. 하나님은 이 뜻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옮기고 사백년이 넘도록 고통스런 삶을 살게 했다. 당시 세계 중심국가인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게 한 것은 인간의 탐욕-모든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영원불멸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하나님이 의도하신 시간이 되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주기 시작하셨다. 제일 먼저 제시된 법이 유월절법이다.(출 12:1-28,13:1-10)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되 반드시 무교병을 칠일 동안 먹도록 하셨다. 만약에 누룩을 먹거나 장막 가운데 두면 무리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고 하셨다. 다음으로 주어진 법들이 초태생을 바치는 것과 한 오멜 법이다.(출13:11-16, 16:13-20)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는 법이며 만나를 거두데 한 사람이 한 오멜만 거두라는 법이다. 곧 이어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제단법이 주어진다.(20:1-17, 22-26) 십계명은 구약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제단법은 성막 이전까지 여호와께 제단을 쌓을 때 흙덩이 위에 제물을 놓으라는 법이다. 굳이 돌로 제단을 쌓고 싶다면 다듬지 않은 자연적으로 쌓으라는 법이다. 만약 제대로 만들겠다고 정으로 돌을 깨거나 제단을 만들어 오르내리면 저주를 내리겠다고는 법이다.

- 여기까지 이 법들이 의미하는 바는 그 동안 애굽에서 당한 고통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제단을 쌓고 신전을 건축하면서 살았던 무의미하고 고통스런 삶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권력과 부를 독점한 바로의 욕망이 얼마나 힘없는 타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다. 동시에 이제 언약에 땅에 들어가 열국을 복되게 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무교병을 먹을 수 있고, 한 오멜만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산해진미에 익숙한 입맛을 존재를 위한 입맛으로 바꾸라는 뜻이다.

- 특히 제단법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사백년이 넘도록 그들은 국고성과 피라밋을 쌓으면서 살아왔다. 그들에게 제단을 알아서 쌓으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바로의 신보다 크신 여호와를 위해서 바로의 신전보다 더 거대하고 화려한 제단과 성전을 짓겠다고 자신들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 그들에게 토단이나 자연석단을 짓도록 한 것은 우선 그들에게 쉬을 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열국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가치와 문화를 뒤집어엎으라는 뜻이 숨어 있다. 이 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613가지 법들은 모두 이런 정신과 의미를 담고 있다.

- 모세 때 완성된 성막은 그 규모나 형태가 애굽의 신전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초라하다. 솔로몬 성전 역시 작고 소박하기 짝이 없다.



- 한국교회는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의 초라함과 소박함의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의미는 거대함을 지향하는 문화를 종식하고 거룩함을 지향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라는 것이다. 권력과 부를 독점한 개인의 영원불멸을 위해 피라밋이나 거대한 신전을 건축하느라 힘없는 자들을 노예로 동원하는 일을 끊으라는 뜻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일평생 동안 존엄성을 갖고 자신의 일터에서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라는 뜻이다. 짐승마저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세우라는 뜻이다.
- 그러나 인간은 이 일에 실패한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뒤 자신의 왕궁을 지으면서 이 사명과 정신을 잃어버린다. 거대함을 지향하다가 과중한 세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나라가 분열되었다.(왕상12:1-20)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참회했지만 역사를 돌이킬 수 없었다. 팽창한 국가 체제가 솔로몬의 개혁을 수용하지 못했다. 북쪽 이스라엘은 국가 존립을 위해 금송아지를 포기하지 못했고 남쪽 유다는 국가의 확장을 산당을 포기하지 못했다. 그 결과 앗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
- 이스라엘의 패망은 인간의 실존을 확증하게 했다. 인간은 자기존립과 자기확장을 위해 끝없이 투쟁하다 스스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 이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자기존립과 자기확장만으로 진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마16:24)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구원하셨다.(고후 5:14-17)
-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원하셨던 열국을 복되게 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자기를 위해 타자를 부정하던 인간들이 타자를 위해 자신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으로 알고 내 놓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특히 물질적으로 한금이라는 은사가 시행되었는데 일용할 양식 외에 것을 내 놓으면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지므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핏절한 사람이 사라지게 되었다. 자발적 가난이 불편하거나 꺼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로 인식되고 실천되었다. 이 사실을 묵도한 수많은 이웃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행2:42-47, 4:32-35)

3. 한국교회는 자발적 가난을 이어가야 한다.

- 먼저 한금을 물질적 나눔의 수단이며 평균케 하는 선물로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건물이나 기타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을 최대한 축소해야한다. 우선은 교회 안에, 그리고 지역사회에 경제적 약자를

돕는 일에 지출하는 비율을 최대한으로 확대해야 한다.

- 건축이나 건물 유지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분립개척이라는 특별한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분립개척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최선의 길이기도 하다.
- 이런 헌금의 실천을 위해서 교인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딤후6:6-10) 적게 벌어서 적게 쓰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고 적용해야 한다. 자신의 소득과 지출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우리 교회에 티코 타고 오는 사람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출석하고 삼년이 되면 에쿠스 타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란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는 설교가 아니라 불편하게 하는 설교에 감동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쪼개달라는 기도보다 말씀이 자신을 쪼개 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난해 지고 불편해 질수록 세상은 부하고 편하게 된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이 비밀은 산 위에 동네처럼 한국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들어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언약이며 자신을 위한 소망이기 때문이다.